

LOCAL

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올해 ‘청소년이 바꾸는 순천’ 만든다

‘함평천’ 친수공간 확대 종합개발 마스터플랜 착수

함평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조성에 나선다.

14일 군에 따르면 함평천을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고 주변 유휴 부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함평천권역 종합개발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을 이번달 착수한다.

함평천은 함평읍 도심을 관통하는 지역 대표 하천으로, 오랜 기간 지역 주민과 고락을 함께해 온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연 자산이다.

하지만 최근 여가·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하천의 기능이 치수와 이수를 넘어 ‘친수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함평천에는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친수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마스터플랜을 통해 고수부지, 하중도 등 하천부지를 활용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함평천 주변 유휴부지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계획도 정립해 함평천을 군 대표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역 축제인 ‘함평나비대축제’, ‘대한민국 국향대전’ 등 지역 축제와 연계해 통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생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신안, 첫 농촌협약 사업 선정 696억 투입…정주여건 개선

신안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촌협약’ 사업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권 단위로 협약을 체결해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공간을 체계적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공동 투자를 이행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신안군은 향후 5년간 중부재생활성화지역(압해읍, 자은면, 압태면, 팔금면, 인좌면)에 최대 65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화된 정주공간 정비, 취락지역 개선, 특화지구 조성 등 농촌재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올해 하반기 중부생활권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지리 사업유형이 협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한편, 내년 초 농식품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시, 343억 투입…참여·성장 등 5분야 47개 사업 추진 노관규 시장 “안전·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순천시가 올해 청소년 참여와 보호, 성장을 아우르는 청소년 정책에 343억원을 투입한다.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열고 청소년을 위한 ‘2025년 청소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기본계획인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됐으며, 청소년 참여·관리 보장, 위기청소년 맞춤 지원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청소년정책(맞춤형교육) 총괄 조성 등 총 5개 분야, 47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해 진로체험과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정책 참여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선비문화체험학습관을 통한 청소년들의 인성·예절교육, 시립소년소녀합창단 및 관현악 아카데미 운영, 청소년 동아리 육성 등을 통해 예술·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저소득 유·청소년 600명에게 월 10만5000원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원 하는 등 체육활동도 강화한다.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 등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자원봉사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전인적 성장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방과 후 아카데미를 연중 운영한다. 위기청소년 보호와 자립지원을 강화하



순천시가 올해 청소년 참여와 보호, 성장을 아우르는 청소년 정책에 343억원을 투입한다. 사진은 최근 열린 순천시 청소년참여기구 위촉식 및 워크숍.

기 위한 맞춤형 지원망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위기청소년 1:1 찾아가는 상담,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우울 선별검사와 고위기 청소년 대상 사례 관리로 청소년 안전망을 강화한다.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1388 전화상담과 집중심리클리닉을 운영하며, 부모교육도 월 1회 이상 확대해 가정 내 소통 강화를 돕는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담, 교육, 직업체험, 자립지원, 검정고시 대비반 등을 운영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발전특구 기반 맞춤형 교육으로 미래 인재 육성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올해 교육발전특구와 교육경비 지원사업으로 130억원 규모의 총 50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연계통합돌봄, 순천형 창의인재 양성, 정주형 특화교육을 중점으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교육의 질을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디지털 과의존, 흡연 등 유해환경 대응에도 나서며 청소년문화센터와 민관 합동 캠페인을 통해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에 힘을 예견이다.

노관규 시장은 “순천의 오늘이자 내일인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키우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순천=박철석 기자 2556pk@gwangnam.co.kr

완도, 국제·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

해남세무서와 협약…내달 중 운영 예정

완도군은 최근 해남세무서와 군청 내 국제·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국세는 해남세무서 완도민원실, 지방세는 완도군청에 처리하고 있으나 양 기관을 이용하려면 도보로 왕복 20분 정도가 소요돼 고령자와 도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있었다.

통합 민원실은 관련 심의 및 사무 공간 공사 등을 거쳐 다음달 중 운영될 예정이다.

민원실에는 해남세무소 공무원이 상시 근무하고, 국제·지방세 신고, 제증명 발급, 사업자 등록 신청, 상담 등이 이뤄지게 된다.



완도군은 최근 해남세무서와 군청 내 국제·지방세 통합 민원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민원실이 문을 열면 원스톱 세무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납세 편의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남=성정수 기자 sjs8239@

여수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 운영

여수시는 체험형 야간관광 프로그램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을 16일 첫 시작과 함께 본격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수엔’ 앱을 통해 회차당 40명씩 총 160명을 모집했으며, 이 중 회차당 30명씩 총 120명의 참가자가 최종 선정됐다.

상반기 일정은 16일, 30일, 6월 14일, 6월 27일 등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 ‘아쿠아리움과 함께하는 한밤의 산책’

은 여수의 주요 야간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콘텐츠로, 해양기상과학관 및 아쿠아리움 관람, 야간 산책, 숙박 체험 등을 통해 도심 속에서 자연과 바다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운영되었으며,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99%가 ‘만족’ 및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영암군은 최근 군서면 구림마을에 조성된 전통 한옥 숙박시설 ‘구림한옥스테이’ 공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전통과 현대 조화 ‘구림한옥스테이’ 개관

영암군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지역 관광 활력”

영암군에 체류형 문화관광 거점 역할을 할 한옥 숙박시설이 문을 열었다.

14일 영암군에 따르면 최근 군서면 구림마을에 조성된 전통 한옥 숙박시설 ‘구림한옥스테이’ 공식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구림한옥스테이는 영암군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과 군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통 한옥의 고즈넉한 멋과 현대적인 편의성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구성하였으며, 머무는 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경과보고·향후 운영 계획 발표, 기념사, 문화예술 공연, 테이프 커팅식, 기념식수, 시설 관람 등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문화관광의 거점으로서 비전을 제시하는 구림한옥스테이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내부시설로는 넓은 마당을 품은 한옥독채 5동을 포함한 서비스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숙박 기능을 넘어 전통문화 체험, 커뮤니티, 휴식 공간 등을 함께 갖춘 복합형 한옥 문화공간으로,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함께 머물며 전통문화를 경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구림마을의 정체성을 깊이 있게 체감할 수 있는 문화적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운영을 맡은 영암문화관광재단은 그동안 기찬랜드 내 대표 숙박시설 ‘기찬재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기 체류형 관광 모델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전남도가 지원하는 ‘구림마을 헤리티지 프로젝트’와 연계해 지역 내 소비 확대와 인근 상권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며 지속가능한 지역 관광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승희 군수는 “구림한옥스테이가 소규모 그룹과 가족 단위 방문객들의 커뮤니티 공간이며 문화체험의 중심이자 블루웨이케이션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림마을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gwangnam.co.kr

약국출시

한국인은
K-낙산균

국내 최초 특허
한국인 유래 특허 균주 함유

VHCME+

특허등록번호 10-1772393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100개
K-낙산균2 200 mg, L555락균 200 mg,
보툴리나 100 mg, 유산균 10 mg
(총 100개 균주 포함)

VITAMIN HOUS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VHCME+
K-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한국인에 맞는 프로바이오틱스 동물라

문의전화 1588-8529

제조원 엔피케이(주) | 유통판매원 비타민하우스(주)